

<단편 영화 최종 시나리오>

경인여자대학교 영상방송과
김수진 권유선 이효범

제목: 미정

장르: 단편영화

주제: 유기견

기획의도: 일부 책임감 없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싶었다.

영상의 길이: 10분 - 15분 내외

영상소구점: 자동차가 치고 간 자리에 흰 강아지가 피를 쏟으며 누워 있는 장면.

시나리오

등장인물: 여자, 남자1(혼자 사는 백수), 남자2

S#1. 집 안_INT_낮

열리는 현관문. 깔끔한 옷차림의 한 남자(남자1)가 통화를 하며 집에 들어온다. 피곤한 듯 신발을 벗으며 가볍게 목을 돌리며 근육을 푼다. 남자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앉아 있다가 별떡 일어나 현관문으로 마중을 나가는 여자. 여자가 가까이 오자마자 남자는 귀찮다는듯이 여자에게 손사레를 친다.

남자1 : (손사레를 치며 통화 중) 이따 저녁에 술 마시자고? 애들 다 온대? 나야 뭐 남는 게 시간이니까...
... 어어, 이따 봐~ (여자를 쳐다보며) 아이~ 저리 가, 저리 가.

남자는 전화를 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는다. 방문 앞까지 쫓아가지만 가차없이 쿵 닫히는 문소리에 화들짝 놀라고서는 닫힌 문 앞을 서성이는 여자. 가볍게 문을 두들겨도, 문고리를 돌려도 보지만 열리지 않는다. 여자가 다시 소파로 가 앉은 순간,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남자가 부엌으로 향해 냉장고를 열어 본다.

남자1 : (신경질적으로 냉장고 문을 열고는 닫으며) 아이 씨, 뭘 집구석에 먹을 것도 없네.

그런 남자를 소파 주변에서 기웃거리는 여자. 남자, 문을 닫으려는 순간 음료수 칸 옆에 놓여 있는 우유를 본다. 우유와 여자를 번갈아서 쳐다보다가, 우유를 꺼내들고는 찬장에서 대충 밥그릇을 꺼내 우유에 잘 섞이게 약을 넣고 섞는다. 어느 정도 섞인 우유를 여자의 앞에 있는 낮은 테이블에 내려놓는 남자.

남자1 : (여자를 힐끗 쳐다보고는 핸드폰으로 카톡을 하며) 야, 그거 먹어.

먹으라는 남자의 말에 금새 시무룩한 표정에서 입꼬리를 올려 웃으며 우유를 마시는 여자.

- 장면 전환 -

S#2_차 안

어디론가 달리는 차. 여자는 조수석에 앉아 세상 모르고 자고 있다. 남자(남자1)는 한 손으로 핸들을 잡은 채로 자는 여자를 한 번 쳐다본다. 꽤 멀리 온듯하다.

S#3_산 속_해질녘

남자는 잠든 여자를 안아 들어 산 속 깊숙한 곳에 놓고 가 버린다. 멀어지는 차의 뒷모습.

여자는 이상한 기분에 번뜩 눈을 뜬다. 처음 보는 장소에 자리에서 일어나 당황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도로로 나온 여자, 지나가는 차가 요란하게 클락션을 울린다. 깜짝 놀라 도로 가장자리로 쓰러지듯 넘어지는 여자.

- 타이틀 -

S#4_길거리_EXT

비틀거리며 사람들이 많은 길을 위축된 상태로 걸어가는 여자.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는다. 눈치를 보며 걷기만 하다가 어느새 해가 저문다.

S#5_어느 슈퍼마켓(캠퍼스마트?...)앞_밤

몇 시간의 공복으로 인해 배가 고프지 이끌리듯 한 슈퍼마켓 앞에서 유리창 너머로 음식들을 쳐다보는 여자. 역시 지나가는 사람들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 옷차림과 얼굴 모두 께죄죄해진 상태.

여자:(슈퍼마켓 창문에 딱 붙어서 눈을 굴리며 음식들을 살핀다)

지나가는 여고생/여대생들: 으 뭐야~ 더러워. ㅋㅋㅋ 뭐하는 거야? 아 그래도 썸 불쌍하당. ㅋㅋ

그때, 그런 여자를 한 남자(남자2)가 주시하고 있다. 여자의 곁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뒤지며 천천히 다가가는 남자.

남자2 :(주머니에서 과자/초코파이 같은 작은 봉지 과자/를 뜯어 여자 쪽으로 내밀며 자세를 낮추고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강아지 유인하듯이) 배고파? 자~ 이거. 먹을래?

여자:(과자에 시선을 고정해 채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침을 삼킨다.)

남자2 : (과자를 여자에게 더 가까이 내밀며)그래, 그래~ 이거 먹고~ 요 앞에 우리 집이니까 가서 같이 더 맛있는 거 먹자? 응? 착하지. ㅋㅋ

여자: (과자를 덩싹 물고 허겁지겁 먹는 데에 정신이 팔려 있다)

남자2 : (여자가 과자 먹는 데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어깨에 손을 두르고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기며) 이쁘게 생겨 가지고 어딜 그렇게 혼자 돌아다녀~? 겁도 없이?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한 여자, 이제야 상황 파악을 한 듯 놀란 표정으로 힘껏 남자의 손을 뿌리쳐 달아나지만 이내 다시 잡히고 만다. 남자, 화가 난 표정으로 욕을 하며 여자를 인적이 없는 골목 깊숙한 곳으로 끌고 간다.

남자2 : (여자를 구석으로 밀치고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아, 이 씨발 개새끼가 진짜... ... 성가시게 구네.

여자를 구석에 몰아넣고 (여자 넘어졌으면) 험악한 표정으로 말하는 남자.

남자2 : (여자에게 샷대질을 하며) 야, 여기 가만히 있어. 알겠어? 기다려.

남자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여자는 조금 떨어진 남자를 쳐다보며 자리에서 비틀비틀 일어나 도로로 뛰쳐나간다. 욕을 하는 남자, 황급히 따라간다. 그때 들리는 클락션 소리와 둔탁한 치이는 소리.

남자2 : (머리를 쓸어올리며) 아~이, 씨발.....

여자를 친 자동차는 유유히 그냥 떠나가고, 그 자리엔 차에 치여 피를 흘리고 있는 흰 강아지가 누워 있다. 카메라는 계속해서 강아지를 비춘 상태로 남자1의 음성.

남자2 : 아오!!! 저 미친 새끼, 치고 그냥 가 버리네~ 염병할 새끼..... 아오~ 한 건 하나 싶었더니, 재수가 없으려니까.....

F.O